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1월 18일

| 금주의 이슈 |

- I.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
- II. 뜨거운 감자 ‘주취감경(酒醉減輕)’, 무엇이 문제인가 / 9
- III. 자유한국당이 배워야할 방탄소년단의 성공비결 5가지 / 13



금주의 이슈

■ 금주(1월 셋째 주)는 경제·사회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1편에서는 가상(암호)화폐를 둘러싼 최근의 정부규제 방침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주취감경’ 법원칙에 관한 논란과 입법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끝으로 제3편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성공비결이 우리 당에 던지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제1편 :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가상화폐(비트코인) 광풍에 대응한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강압적 규제를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2편 : 뜨거운 감자 ‘주취감경(酒醉減輕)’, 무엇이 문제인가

- 흉악한 주취범죄자에 대한 재판부의 ‘주취감경’ 법원칙에 따른 온정주의적 판결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졌음.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발빠른 ‘입법 논의’와 ‘법원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3편 : 자유한국당이 배워야할 방탄소년단의 성공비결 5가지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는 2017년 빌보드 연말차트 TOP 10에 오르면서 전 세계인의 친구로 떠오르고 있음. 방탄소년단은 중소기업사 소속으로 SNS를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꾸준히 팬들과 친근하게 소통한 것이 성공의 비결임

2018. 1. 18

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대 식

1.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작성: 경제정책실¹⁾ ☎02-6288-0535

가상화폐(비트코인) 광풍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데다 업계·학계의 입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20~40대의 대다수 젊은 투자자들 및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침. 따라서 정부의 강압적 규제를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가상화폐²⁾, 비트코인(Bit Coin)이란?

-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로서 가장 통용이 많이 되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임
 - 2140년까지 2100만개를 생산하고, 그 후 중단되도록 설계됨
 - 두 번째 많이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Ethereum)이며 2014년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개발함
- 빠르게 진전되는 온라인 추세에 맞춰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화, 엔화, 원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화(法貨·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 비트코인(이하 가상화폐라 칭함)을 처음 개발함
 -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사람이 한 홈페이지(www.bitcoin.org)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알려졌으나 개인이 만든 것인지 또는 단체가 만든 것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음

1) 작성: 김진욱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나경태 연구위원

2) 가상화폐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황이며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처음 내놓은 가상화폐 테스크 포스(TF) 자료에, 가상화폐란 ‘민간에서 발행한 전자적 가치의 표시’라고 정의했음

- 가상화폐의 핵심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 어떤 중앙집중적 권력의 개입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산화된 거래장부’ 형식 (블록체인)으로 운영됨

2. 현황

-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국제 시세가 폭등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내 시세 및 거래량도 급등함
 -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2017년 1월 1,000달러를 넘어선 뒤 6월에는 3,000달러 돌파, 2018년 1월16일에는 11,790달러까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함
 -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는 2017년 6월 기준 3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2018년 1월 6일 2,661만원, 17일 1,400만원으로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모든 가상통화 가격은 해외 시세보다 40% 이상 높음. 즉 김치프리미엄³⁾이라 칭함
- 가상화폐는 거래 및 보관비용 절감, 도난·분실 우려 방지, 익명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범죄에 활용되기 쉬우며 거래의 불안전성 등의 단점이 상존
 - 2016년 한 해 동안 해커들이 랜섬웨어⁴⁾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 세계 1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이 금액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지급됨
 - 2017년 국내에서는 웹호스팅업체 ‘인터넷나야나’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1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송금했으며,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을 당해 5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함

3)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차이, 특히 가상화폐가 외국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을 의미함. ‘비트코인 김프(김치 프리미엄)가 30% 붙었다’는 말은 외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국내 거래소가 30%는 비싸다는 뜻

4)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사용하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임

- 2017년 11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1위를 차지하는 업체 ‘빗썸’이 비트코인캐시 시세가 정점을 찍던 시점에 갑자기 마비돼 거래에 차질이 생겨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함
- 국내에서는 시세 확인에 매달려 정상적 생활 붕괴(비트코인 좀비), 가상화폐 비 투자자들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호소(비트코인 블루) 등 사회적 문제 급증
- 국내 가상화폐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규제안을 잇달아 발표함
 - 9월 중국 인민은행은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⁵⁾를 통한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 이후 미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에서도 가상화폐 규제의 뜻을 밝힘
 - 9월 정부는 기존 은행 연계를 통한 ① 본인 확인절차 강화 ② 불법 자금 세탁 등 의심거래 발생 시 은행의 금융위 신고 의무화 ③ 가상화폐의 유사수신행위규제 법 확대 적용(ICO 전면 금지)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
 - 2017년 12월 ‘거래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으로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거래의 안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2018년 1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자 가상화폐 가격이 1,400만원까지 급락하였음(1월 6일 최대 2,661만원)
 - 정부의 정책 혼선 발언으로 투자자들에게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12일 청와대, 폐쇄 아니다 → 16일 김동연 장관, 폐쇄 살아있는 옵션)
 - 1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래소 폐쇄 금지에 서명한 사람이 214,990명에 달함

5)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음.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음

3. 문제점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비판

- 가상화폐를 단지 사기 행태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 부정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업계·학계의 반발
- 각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추세와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등을 모니터링한 후 정책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음 → 규제 완화 필요성

○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저해 우려

- 기존 금융회사는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
- 높은 보안 장점을 지녀 최근 은행, 증권사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송금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화폐를 비롯해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등 이종 산업으로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신성장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이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라는 이유로 규제 및 저평가 받는 현실
- 블록체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법적 공백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ICO(가상화폐공개) 전면 금지에 대한 실효성 결여

- 가상통화 투기 광풍과 ICO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2017년 9월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ICO 거래를 일종의 다단계 판매로 보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규제조치 단행
- 하지만, ICO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법적 제한이 없는 국가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바, 정책 실효성 없이 국내 자본만 유출될 것이란 지적(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발자가 영국령인 지브롤터에서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할 경우 표면상 해외 ICO가 되므로 국내에서 이를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음)

- 가상화폐업계는 ICO 전면 금지 조치가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엔 반발 기류가 학계 등으로까지 확산
- 정부 권고로 출범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역시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에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힘

4. 비트코인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

- 미국: 2017년 12월 선물거래 시작
 -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 하였으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 화폐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내기도 함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이 스위스은행 계좌처럼 악당들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며 G20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힘
- 일본: 2017년 4월 법적 결제 수단으로 허용
 - 가상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여 제도권에 편입시켜 일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함
 - 2014년 가상 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가제를 도입하고 금융 당국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음
-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이견(異見)
 - 러시아 재무부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는 피라미드 방식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중국: 거래소 폐쇄

- 중국은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거래소를 폐쇄하고 관련 업체들에게 ‘비트코인을 생산,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라는 공문을 전달함

5. 대응방안

-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되, 2030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건전한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거래자 스스로 과잉 몰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거래자 보호 및 안정화 기대
- 블록체인 기술 확산 및 산업 활성화 방안 등 블록체인 위축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ICO 전면 금지는 성급하고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금지정책보다는 국가별 규제 추세, 시장 흐름과 업계의 입장까지 고려한 정책 개선 도모 필요
-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정보보호기금으로 납부받는 등 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및 인력 개발에 투자할 자원 마련해, 이를 활용한 신사업 또는 신규 서비스 출시 → 선순환 생태계 모델 구축이 필요함

II. 뜨거운 감자 ‘주취감경(酒醉減輕)’,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02-6288-0528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주취감경’ 문제는 흉악한 주취범죄자에 대한 재판부의 ‘온정주의적 판결’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국민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발빠른 ‘입법 논의’와 ‘법원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취감경(酒醉減輕)’

-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단기간에 21만 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급부상
- 주취감경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인을 심신장애인으로 보고 형을 줄여주는 강행규정
 -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함
 - 이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 사건’으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있었던 이유로 감형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징역 12년에 처한다.”

- 조두순 1심 판결 -

- 조두순 사건 이후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시키는 등 성폭력특별법은 개정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
 - 그러나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강력범죄나 반인륜범죄에서는 여전히 형법 제10조 제2항이 강행규정으로 작용

2. 주취감경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중

- 현재 국회에는 주취감경 내용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등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법사위에 계류중⁶⁾
 - 여전히 계류중인 주된 이유는 주취감경 조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임
 - ※ 책임주의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대원칙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

[표] 대표적인 주취감경 관련 주요 개정안

의원명	관련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상태
김삼화 의원 (국민의당)	형법 개정안 (2017년 6월)	- 성폭력범죄 등에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감경규정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계류중
서영교 의원 (민주당)	형법 개정안 (2017년 7월)	-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신설	계류중
신창현 의원 (민주당)	형법 개정안 (2017년 12월)	-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함	계류중

6) 주취감경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18대 국회 이후 40여건이 제출됐지만 법사위에서 번번히 통과되지 못함

- 형법은 ‘의사결정의 자유’에 주목해 달리 행위 할 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범죄에의 충동을 억제하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임
-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형법 제9조)이나, 19세 미만에겐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벌의 수위를 달리하는 것도 바로 이 원칙 때문임

[참고] 해외 사례

- 독일과 프랑스는 술이나 약물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폭행, 성범죄 등)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가중처벌함
- 미국과 영국에서도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형성돼 주취감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II. 또거운 감자 ‘주취감경(酒醉減輕)’, 무엇이 문제인가

3. 법조계는 주취감경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

- 법조계는 주취자에 대한 감형을 막기 위해 형법 제10조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입장
 - 이는 주취자에 대해 온정적인 처분을 내리자는 의견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책임주의’의 원칙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적 입장에 의한 것
- 이처럼 법조계가 주취감경 폐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기 때문
 - 특히 법관들은 법률을 제·개정하지 않더라도 법관 재량에 따라 법원의 양형기준을 조정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함
- 또한 법관들은 현행법률을 그대로 두더라도 성폭력 등 주취감경을 반드시 배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대해 개별법률로 정하면 된다는 견해
 - 실수로 저지른 범죄와 같이 주취감경이 필요한 사례가 있는 반면 주폭(酒暴)

처럼 오히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개별범죄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재량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4. 시사점

-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이 그간 시대 흐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 법개정 요구마저 포퓰리즘이라고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강함
 - 조두순 사건 이후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주취범죄에 관대했던 법원의 관행이 국민의 법개정에 대한 직접적 요구로 이어진 것
 - 또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감형 조항 자체가 아니라 주취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에 대한 결과
-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취로 인해 형을 감경해야만 할 정도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몫
 - 스스로 술에 취한 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가 저지른 흉악범죄, 무법적 폭력을 불가항력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식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법관 양심에 따른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
 - 따라서 술에 취해 흉악 범죄 혹은 무법적 폭력을 저지른 자의 형을 감경하는 문제는 국민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발빠른 ‘입법 논의’와 함께 ‘법원 정상화’ 추진으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III. 자유한국당이 배워야할 방탄소년단의 성공비결 5가지

작성: 김신의 연구팀원, 나경태 연구위원 ☎02-6288-0535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는 2017년 빌보드 연말차트 TOP 10에 오르면서 전 세계인의 친구로 떠오르고 있음. 방탄소년단은 중소기업사 소속으로 SNS를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꾸준히 팬들과 친근하게 소통한 것이 성공의 비결임

1. 방탄소년단(BTS)⁷⁾의 성공을 보여주는 SNS 지표

- 페이스북 팬 수(2017년 1월 18일~2018년 1월 9일 기준)
 - 전 세계 590만 227명으로 하루에 약 1만 6천 명씩 늘어나고 있음
- 트위터 팬 수(2018년 1월 9일 기준)
 - 약 2천만 명으로 한국인 계정 최초로 1천만 명 돌파
 - 트위터는 공식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계정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으로 선정함
-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2018년 1월 4일 기준)
 - 85억 1764만 4904회로 전 세계 인구수(74억)보다 많은 숫자임
 - 미국, 브라질, 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의 순으로 시청을 함

7)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방시혁대표)소속 남자 7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2013년 6월 데뷔함. 방탄소년단의 '방탄'은 충알을 막아낸다는 뜻으로 10~2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2. 2017년 방탄소년단의 주요 성과

○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세운 기록들

- K팝 그룹 최초, 2017년 빌보드 뮤직어워드 톱소셜 아티스트 부분 수상
- 미국 TIME지,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으로 선정
- 「기네스세계기록 2018」에 방탄소년단은 '트위터 최다 활동' 남성 그룹 부문에서 리트윗 수 15만 2112회를 기록하여 등재됨
 - ※ 세계적 팝가수 비온세가 3만 3083회, 영국 보이그룹 원디렉션의 멤버 해리 스타일스가 18만 607회임
- K팝 최초,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초청 단독 공연
-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연말 차트 TOP 10 선정

○ SNS로 성공한 가수 싸이와 방탄소년단의 차이점 비교분석

비교	싸이(Psy)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대형기획사(YG Entertainment)	중소기획사(Big Hit Entertainment)
확산 방법	TOP-DOWN 방식 유명인들의 언급에 이은 확산	BOTTOM-UP SNS 통한 자발적 확산
확산 플랫폼	유튜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V앱 라이브
1억 이상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등 6곡	불타오르네 등 12곡
BBC 평가 (2018년 1월 8일)	'일회성에 그침' 평가	'K팝 왕자들의 지속적인 힘' 평가

3. 방탄소년단(BTS) 성공 View Point⁸⁾

○ 디지털 원주민 : ‘전 세계 SNS 王’

- BTS는 SNS를 통해 공감가는 메시지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꾸준하게 다양하면서도 입체적으로 전달하여 그 결과 해외에서 두터운 팬 층이 형성되었고 ‘나와 소셜 미디어로 연결된 친구’같은 존재가 됨
- 자신들이 작사·작곡한 곡, 다른 가수들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바꿔 부른 비공식 음원, 자신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 등 정식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하여 업로드 함
 - ※ 많이 접하면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 계속 좋아할 가능성이 커지는 단순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를 통해 지지층을 넓히고 강력하게 만듦

○ 보편적 동시대성 : 공감

- 사랑, 이별 이야기 보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가사에 녹여 ‘우리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10대~20대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움
 -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육포가 좋아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릴 싹 주식처럼 매도해, 왜 해보기도 전에 죽여”(BTS, ‘찢어’ 가사中)

○ 개인적인 유대감 : 옆집 오빠, 형

- 기존 대형기획사의 아이돌은 신비주의에 가려져 만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BTS는 팬들과 SNS로 자유롭게 소통하여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팬들과 함께 하고 있음
 - “대구에서 음악하면 잘 돼봤자 음악학원 원장이나 하겠지란 생각이 날 뻔 때려 (중략) 밤에는 연습하고 새벽엔 알바하고 그렇게 지친 몸 끌고 학교로 가면 잠만 자던 내가 20살이 되버렸네”(BTS 노래, 724148 中)

8) 중앙SUNDAY, ‘방탄소년단의 성공방정식’(2018년 1월 8일자)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 서태지 세대의 향수 : 세련미 + 엄친아

- 서태지 노래를 듣고 자란 40~50대는 BTS에서 서태지의 세련미와 우리 아들과 같은 세대의 아이들이 성실함, 동료에 대한 배려, 겸손을 갖추고 있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즉 잘 자란 아이) 이미지를 느끼고 있음

○ 감동적 스토리텔링 : 흙수저 + 중소기업사

- 소속 멤버 모두 지방 출신 10대로 중소기업사 연습생 시절을 겪으며 배고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음
- BTS는 TV속 아이돌이 아닌 자기 자신과 같이 성장하는 존재로 각인됨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우상이나, 암시적이더라도 일진을 찬양한다거나 사회 부조리를 용인하는 이야기를 노래에 넣어서는 안 되고 순간적으로 멋있더라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BTS 소속사 방시혁 대표 인터뷰 中)

4. 자유한국당이 배워야할 점

○ 아이돌 = 정치인이다

- 아이돌: 연습생 시절 → 앨범 준비 → 데뷔 → 방송 및 공연 활동 → 연습 → 다음 앨범 준비, 동시에 끊임없는 팬과의 소통필요
- 정치인: 정치 출마 준비 → 공천 및 선거 → 당선 → 법안 및 상임위 활동 → 다음 공천 및 선거, 동시에 끊임없는 국민과의 소통필요

○ 국민과의 소통을 밥 먹듯이 하라

- BTS가 대형기획사의 아이돌과 경쟁 속에서 성공한 비결은 SNS였음
- 자유한국당: 지난 대선기간 중 여론에서는 ‘당 페이스북과 당 구성원과 연계성’ (즉 당 게시물을 공유, 좋아요, 댓글)을 전수 조사 하였으나 SNS 운용율(페이스북 기준)이 매우 낮았음
※ 개인 정보활용에 동의했으나 전혀 활동하지 않은 구성원 ① 국회의원 19.1% (전체 74명中 19명) ② 원외당협위원장 60.49% (전체 81명中 49명)

- ③ 광역의원 72.63% (전체 95명中 69명) ④기초의원 84.64% (전체 306명 中 259명)에 이룸

○ 국민의 소리를 먼저 살피라

- BTS 소속사 방시혁 대표는 끊임없는 인터넷 서핑을 통해 ‘BTS를 싫어하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잘해 줄 수 있을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답을 구함
- 아이돌과 정치인에게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댓글이 하나도 없는 것, 무관심)임을 명심해야함

○ 공감형 콘텐츠로 승부하라

- BTS는 노래 소재는 대부분 자신 또는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
- 정치인들은 ‘행사 다녀 왔습니다’, ‘축사 이렇게 했습니다’ 위주의 일방향성 SNS 활동보다는 국민의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반응, 국민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챙기는 공감형 콘텐츠로 승부해야 함

○ 악해지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 소통하자

- BTS는 암시적이더라도 일진을 찬양한다거나 사회부조리를 용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짜우상(idol)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착한우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텔런트 이순재씨의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음. ‘사랑이 뭐길래’의 흑박지르는 대발이 아버지 이순재 VS ‘꽃보다 할배’의 친근한 이순재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